

▲ 6개월 안에 발주 단가가 같아엎힌다

CASE STUDY · 2026.04 · NEC × ANTHROPIC

Claude Code가 3만 명의 개발 조직을 다시 짚는다

다른 기업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이유 — 그리고 당사가 지금 할 일

JAEWOO KIM | Jaewoo@claudecode.to

임원 의사결정 요약자료 | <https://claudecode.to>

한 장 요약 – 임원이 알아야 할 5가지

WARNING · 핵심 메시지

NEC는 사원 3만 명을
Claude Code 위에 올려놨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다.

Anthropic의 글로벌 최초 파트너 NEC는 모든 사원에게 Claude Code-Opus 4.7을 깔았다. 후지쯔·히타치 추격 전 6개월이 후발주자 비용의 임계점이다.



도구

Claude Code — 단순 챗봇이 아닌 코딩·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개발 속도 10배 라인이 현실화.



규모

NEC 그룹 3만 명 동시 전개. PoC·시범사업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는 전사 의사결정.



사실

2026.04.23 발표 — Anthropic의 일본 기업 최초·글로벌 최초 파트너십 (역사적 전환점).



위협

AI 스킬 보유자 임금 +23%. 美 22-25세 SW 개발자 고용 -20%. 발주 단가 구조 6개월 내 재편.



시한

후지쯔·히타치·NTT 데이터 추격 임박. 후발주자 노하우·인재·라이선스 비용 2~3배 폭증.

NEC × Anthropic — Claude Code 전사 전개의 사실관계

발표 (2026.04.23) 핵심 사실

- NEC가 Anthropic의 일본 기업·글로벌 최초 파트너로 지정
- Claude Code·Claude Opus 4.7을 그룹 사원 3만 명에게 동시 전개
- 단순 채팅 AI가 아닌 코딩·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전면 도입
- Claude Cowork 기반 업종 특화 솔루션 (금융·제조·지자체) 공동 개발
- BluStellar Scenario(가치창출 모델)에 Claude 완전 내재화
- 차세대 사이버보안 서비스 고도화에도 적용

Claude Code란 무엇인가



터미널 기반 에이전트

개발자 터미널에서 직접 코드 작성·디버깅·리팩토링을 위임



장기 작업 수행

여러 파일을 동시 수정, 테스트 실행, 멀티스텝 작업 자율 진행



업무 자동화 가능

MCP 연동으로 사내 시스템·DB·SaaS와 결합, 비개발 업무까지

왜 "3만 명"이 결정적인가 — "AI 네이티브 조직"의 정체

규모

30,000

명

AI 네이티브 엔지니어

"AI를 가끔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 위에서 일을 설계하는 사람".
NEC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도구 보유자가 아닌 새로운 종(種)의 엔지니어다.

"AI 네이티브 엔지니어"가 의미하는 것

01

Claude Code가 동료

터미널 옆에 항상 AI 페어가 있다. 코드 작성·테스트·리팩토링·문서화를 위임하고 검토만 하는 워크플로.

02

PoC 단계 건너뛰기

"시범 부서 → 확대"가 아니라 전사 동시 전개. 3만 명의 실전 데이터가 곧 'AI 활용 SI 방법론'이 된다.

03

방법론의 외부 매출

사내 노하우를 BluStellar로 패키지화 → 금융·제조·지자체 고객 솔루션으로 다시 판매. 자기 사용이 곧 R&D.

6개월 안에 모든 발주 단가가 갈아엎힌다

17.8%

세계 노동인구 AI 활용

+1.5pt (3개월간)

+23%

AI 스킬 보유자 임금 프리미엄

동일 직무 기준

-20%

美 22-25세 SW 개발자 고용

2022년 피크 대비

10×

개발 속도 (Claude Code)

NEC 자체 발표 기준

선행자 (NEC 트랙) — 지금부터 6개월

- 전사 라이선스 단가 협상력 확보
- 사내 AI 활용 방법론을 R&D로 자산화
- AI 네이티브 인재가 자연스레 정착

후발자 (지연 트랙) — 6개월 뒤

-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단가 2~3배 폭증
- AI 네이티브 인재 영입 단가 +50% 이상
- 외주 단가는 "AI 표준 장착 전제"로 재산정 — 사내 비용은 그대로

Claude Code가 "엔지니어"의 정의를 바꾼다

✘ 기존 개발 조직

코드를 직접 쓰는 사람

- 한 줄 한 줄 직접 타이핑
- 구현·테스트·디버깅에 시간의 80%
- ChatGPT는 "가끔 참고하는 도구"
- 주니어 인력으로 단순 구현 분담
- 외주 단가가 "사람 기준"으로 책정



✔ Claude Code 시대 — NEC 트랙

AI 페어를 부려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 Claude Code에 "과제"를 위임하고 검토만
- 설계·아키텍처·리뷰에 시간의 80%
- 터미널에 AI가 24시간 상주하는 워크플로
- 1인 엔지니어가 과거 5인분 처리
- 사내 임직원 = 외부 솔루션 R&D 자원

Claude Code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 6가지 핵심 시나리오



01

레거시 리팩토링

10년 묵은 모놀리스를 분석·모듈화. 한 사람이 일주일 → 하루.



02

테스트 자동 생성

기능 추가 시 단위·통합 테스트를 자동 작성, 커버리지 자동 확보.



03

운영 인시던트 대응

장애 로그 분석·원인 추정·픽스 PR 생성을 1시간 안에 완료.



04

보안 취약점 점검

코드베이스 전체를 스캔, OWASP-CWE 기반 자동 리포트.



05

사내 RAG 챗봇 구축

사내 위키·계약서·규정 문서를 학습한 도메인 챗봇 즉시 구축.



06

비개발 업무 자동화

MCP로 SaaS-Excel·기간계 연동, 백오피스 정형업무 봇 전환.

90% 기업이 빠지는 3대 함정 – 우리는 어디까지 짚었는가

01



PoC 멈춤

시범에서 끝난다

고성능 AI가 사내 규정·보안 심사·기간제 연동의 벽에 막혀 "해봤습니다"에서 정지. NEC는 PoC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어 이 함정을 피했다.

자가 점검 질문

당사 PoC 중 실장 단계 진입 비율은?

02



Claude Code = 챗봇 오해

단순 ChatGPT로 격하

"AI 챗봇 도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사용법 강의 1회로 끝난다. Claude Code는 개발 워크플로 자체를 재설계하는 도구다.

자가 점검 질문

당사는 "챗봇"으로 보고 있는가, "에이전트"로 보고 있는가?

03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실의 적신호

사내 코드·데이터를 외부 SaaS LLM에 그대로 붙이면 PIPA·ISMS-P·금감원 가이드 통제 위반. Bedrock 서울·Azure OpenAI Private Endpoint 설계가 선결.

자가 점검 질문

사내망용 Claude 솔루션 검토 단계는?

NEC 모델을 우리 사이즈로 – 6개월 3단계 전사 전개안

1 ~ 2 개 월 · 파일럿

Phase 1. 개발 코어 100명

사내망용 Claude 환경 구축+ 정예 팀 선행

- Bedrock 서울 또는 Azure OpenAI Private 경우 Claude 환경 셋업
- 정예 개발자 100명에게 Claude Code 우선 배포
- 주 1회 사례 공유회 – "내 워크플로가 어떻게 바뀌었나"
- 보안·로깅·권한 정책 1차 확정 (PIPA·ISMS-P 통제 매핑)

KPI 100명 · 사례 30건 · 평균 단축 +30%

3 ~ 4 개 월 · 확산

Phase 2. 개발 조직 1,000명

개발 표준 워크플로에 Claude Code 내재화

- 전체 개발 인력에 Claude Code 라이선스 + 사내 가이드라인 배포
- 사내 RAG (위키·코드·규정) 구축 → 도메인 특화 페어링
- 비개발 부서 "몰래 사용자" 발굴 → AI 에반젤리스트 임명
- 외주 발주 표준에 "AI 활용 전제" 항목 추가

KPI 1,000명 · 자동화 라인 20개 · 월 단축 500시간

5 ~ 6 개 월 · 전사 표준

Phase 3. 전사 AI 네이티브

NEC 트랙 진입 – 사내 노하우의 외부 자산화

- 전 임직원에게 Claude(or Code)를 표준 도구로 지급
- 인사평가에 "AI 활용 개선 실적"을 OKR Key Result로 편입
- 사내 AI 활용 방법론을 컨설팅·SI 패키지로 외부 판매 검토
- 차년도 라이선스 협상 – 선행자 단가 잠금

KPI 전사 · 외부 매출 라인 1개 · 라이선스 단가 잠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 결정의 비용은 2~3배가 된다.

TODAY · 오늘 결재해야 할 3가지

- 사내망용 Claude 환경 구축 예산 승인 (AWS Bedrock 서울)
- Phase 1 정예 100명 선정 + Claude Code 라이선스 발주
- AX 추진 TF의 전사 권한·예산 확정 (인사평가 권한 포함)

COST OF DELAY · 지연 시 6개월 후 비용

-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단가 +200~300%
- AI 네이티브 인재 영입 단가 +50% 이상
- 외주 발주는 "AI 전제" 단가로 빠지는데 사내 비용은 그대로
- 방법론 자산화 기회 상실 — 외부 매출 라인 차단

다음 회의에서 묻는 질문은 "우리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AX 전환 컨설팅 및 Claude Code 교육

ClaudeCode.to가 AX전환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김 재 우

연락처: 010-8014-3479

이메일: jaewoo@claudecode.to

AX 전환 주요 이력:

- 2025 Uniqlo (Japan) – AI 에이전트 자동화 도입
- 2025-2026 NEC (Japan) – Claude Code기반 AX 전환 설계 및 교육 커리큘럼 구성
- 2026 한국기업 진행중 – S사, K사

✓ 지금해야 늦지 않습니다.

Q & A

